

GANGJIN 

# *Web Contents*




# 목차

목차	2
기사자료	3
'휴지 한장 두번 쓰는 회장님'...영랑문학상 시상금 9천만원 쾌척 (2020. 10. 7. 연합뉴스)	3
첨부파일(1)	3

## '휴지 한장 두번 쓰는 회장님'...영랑문학상 시상금 9천만원 쾌척 (2020. 10. 7. 연합뉴스)

작성일 2020.10.07 11:24     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     조회수 214

첨부파일(1)  정철원 회장님.png 53 hit/896.8 KB [다운로드](#)

### '휴지 한장 두번 쓰는 회장님'...영랑문학상 시상금 9천만원 쾌척

송고시간 | 2020-10-07 11:05



조근영 기자

| 협성중건 정철원 대표...강진군에 올해부터 3년간 3천만 원씩



정철원 회장

[강진군 제공·재판매 및 DB 금지]

(강진=연합뉴스) 조근영 기자 = 김영랑 시인을 흠모하며 자랐던 부산의 한 중견기업 회장이 영랑 선양사업을 위해 거액을 기탁해 화제다.

정 회장의 영랑사랑은 시인의 생가가 있는 강진을 열 번 이상 방문한 데에서 느낄 수 있다.

마산상고에 다닐 때 향토적이면서 리드미컬한 김영랑의 시에 매료된 소년 정철원은 세월이 흐를수록 영랑을 향한 마음은 더욱더 깊어졌다고 한다.

그는 자신이 시공한 부산지역 아파트단지 두 곳에 '돌담에 속삭이는 햇발'을 조형물로 설치, 주민들에게 영랑의 감수성을 전파하기도 했다.

정 회장은 경남 거제 출신으로 마산상고(현 용마고)를 졸업한 뒤 건축자재상에 취업했다가 1972년 건축자재상을 차려 독립했다.

1983년 협성중업을 세워 연립주택 32가구를 시작으로 아파트 사업에 뛰어들었다.

협성중합건업은 2020년 시공능력 평가액 5천965억원으로 도급순위 전국 56위(부산 2위)의 최우량 기업이다.

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

#### 영랑시 조형물

[강진군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]

그런데도 그는 '휴지 한 장을 두 번 쓰는 회장님'으로 소문이 날 만큼 근검절약한 삶을 살고 있다.

정 회장은 낙후지역인 부산 영도구의 한 주택에서 산다.

부산의 부자들이 주로 해운대에 사는 것과 뒤틀판이다.

그의 책상 메모지도 달력 이면지를 사용하고, 공사 현장을 돌겠다고 골프도 치지 않는다.

정 회장의 6개 계열사에는 자식은 물론 친인척이 한 명도 없으며, 1남 3녀의 자식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.

2010년 거액의 사재를 출연, 협성문화재단을 설립해 남모르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하고 있다.

chogy@yna.co.kr

---

목록

---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  
RESERVED.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GANGJIN

# ***Web Contents***

